

나주시, 노인일자리와 치매예방 잇는다...두 기관 '맞손'

치매예방·인식개선 등 노인일자리 연계



나주시치매안심센터와 나주시니어클럽이 치매극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나주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노인일자리 참여를 치매 예방과 조기검진, 맞춤형 서비스까지 연계해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건강관리를 함께 지원하는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에 나선다.

10일 나주시(시장 윤병태)에 따르면 전날 나주시치매안심센터와 나주시니어클럽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극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노인일자리 활동을 치매 예방·관리사업과 연계해 치매를 초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치매안심센터 활동 연

계를 비롯해 치매예방 교육과 치매 인식개선 교육, 치매 조기검진 등 치매 예방과 관리 전반에 걸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활동 과정에서 치매 의심 증상이나 고위험군이 발견될 경우 치매안심센터의 전문 검진과 상담으로 신속하게 연계하고 대상자별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노인일자리와 치매 예방·관리사업을 연계하면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 치매 예방과 조기 발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두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적극 연계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성택 기자

담양군, 대치지구 뉴빌리지 '주택정비 상담소' 운영

담양군은 노후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주택정비사업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5일 오후 2시 대전면 행복문화센터 2층에서 한국 부동산원과 함께 '주택정비 현장상담소'를 운영한다.

이번 현장상담소는 대전면 대치지구 뉴빌리지 사업 대상지 주민들이 주택정비와 관련한 궁금증을 전문가에게 직접 묻고, 주택별 여건에 맞는 정비방안을 상담받을 수 있도록 운영된다.

상담 내용은 ▲주택정비사업의 종류와 추진 절차 ▲사업 추진 지원 및 인센티브 ▲사업성 검토 ▲법·제도와 행정절차 등으로, 주민들이 실제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안내한다.

/강종연 기자

화순군,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 맞아 캠페인 실시

화순군은 오는 9월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지난 8일 화순 고인돌전통시장에서 화순군정신건강복지센터 주관으로 군민대상 자살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자살예방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서비스 안내 ▲24시간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찾기 이벤트 ▲우울, 스트레스 검사 ▲센터 카카오톡 채널 추가 뽑기 판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자살예방 상담과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를 알리고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힘썼다.

/남호경 기자

영광군, 제9회 청년친화현정대상 '정책대상' 수상

청년 정책 참여 확대·자립 지원 등 청년친화 정책 성과 인정



영광군청 전경 사진

/영광군청 제공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제9회 청년친화현정대상 정책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가 주관하는 청년친화현정대

상은 청년 정책과 입법, 참여와 소통 분야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청년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한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는 상이다.

영광군은 “청년이 살기에 매력적인 영광”을 비전으로 청년의 군정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청년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청년명예부군수제 및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청년전용예산제가 있으며, 청년 간 네트워크 형성과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는 청년 활력사업, 청년센터 운영 등이 있다.

또한 사회초년생 운전면허 취득 비용 지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자격증 응시료 지원, 청년 창업 지원사업 등을 통해 청년의 자립을 돕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장세일 군수는 “이번 수상은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온 노력을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기 기자

장성군, 필암서원에서 온 가족 웃음꽃 활짝

유생복 입고 서원 누비며 가족과 특별한 추억

장성군이 세계유산 필암서원에서 온 가족이 함께 조상의 지혜를 배우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

군은 지난 5일 장성군가족센터와 뜻을 모아 필암서원과 집성관 일원에서 '아빠와 함께하는 문화탐험'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군이 올해 추진 중인 국가유산 활용 프로그램 '조선유생 로그인'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지역 내 가족들에게 문화유산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아빠와 자녀가 다정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 호응을 얻었다.

현장에는 장성군가족센터 아버지교육 참여 가족들을 비롯해 다문화·비다문화 가정 40여 명의 발걸음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유생복을 차려입고 '유생증'을 받으며 1일 유생으로 변신했다. 이어 훈장의 안내에 따라 필암서원 곳곳을 누비고, 유물전시관으로 자리를 옮겨 문화해설사와 함께 하서 김인후 선생의 발자취와 필암서원의 역사적 의미를 살펴봤



필암서원에서 열린 '아빠와 함께하는 문화탐험' 행사 사진

/장성군 제공

다. 오전 11시부터는 집성관과 야외 마당에서 오감을 깨우는 다채로운 선비문화 체험에 참여했다. 가족들은 '선비 다짐 족자 쓰기', '묵죽도 부채 그리기', 전통놀이 등을 즐기며 웃음꽃을 피웠다.

특히, 조선시대 선비들의 밥상문화를 엿보는 '선비 비빔 한상' 체험이 큰 사랑을 받았다. 참가자들은

나물 등 비빔밥 식재료에 얹힌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은 뒤, 입맛에 맞게 나물과 비빔장을 골라 '나만의 비빔밥'을 완성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유산을 더욱 편안하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콘텐츠 운영에 나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황토갯벌에서 자라는 농산물

양파, 낙지, 고구마, 송어 등 자연의 보고... 황토로 무안

무안군